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

I. 도쿄 요츠야선교부(Yotsuya Mission)의 한국선교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한국그리스도(인)의교회'의 해방 전 명칭

일제강점기 때 '그리스도(인)의교회'(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의 교단명칭은 '기독교회'(基督敎會)였다. 한국에서는 1932년 6월 11일 성낙소 목사가 최초로 교단명칭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신고)하였고, 8월 26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1692호 6면(소화 7년 8월 26일)>. 성낙소에 이어 조선 '기독교회' 제2대 포교관리자가 된 이인범 목사는 성낙소가 제출한 교단명칭을 1936년 7월 8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변경계를 제출하였고, 8월 21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에 소속한 교회들 가운데 38선 이북에 소재한 교회들은 남북분단 이후 생존이 불가능해졌고, 남한의 교회들은 태평양전쟁시기에 대부분 해체되었으나 해방 직후 인천송현교회는 송현성결교회로, 송현교회에서 분리된 인천의 또 다른 교회는 인천제일장로교회(통합)로 재건되었다. 참고로 요츠야선교부에 고용된 한국인 목회자들은 일본에서든 한국에서든 이원균, 이인범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이 성결교회 출신들이었다. 성낙소조차도 구세군 사관이었던 1919년 충북 영동 지방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왜경에게 쫓기던 중 구세군으로부터 1920년 9월 25일 강제 포교폐지<조선총독부관보 제2438호 02면(대정 9년 9월 25일)>를 당하였고, 그 직전인 8월부터 1922년 3월까지 경성성서학원(성결교)에서 수학하였으므로 이들 성결교출신들과는 교류가 수월하였다.

그리고 1935년 4월 25일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선교사가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는 별개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기독교회'(基督敎會 南大門通)



존 T.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가 1937년 초에 설립한 '기독교회'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 직인

란 교단명칭으로 포교관리자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2526호 7면(소화 10년 6월 15일)>, 다시 1937년 2월 25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존 T.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가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여 제2대 기독교회포교관리자가 되었으며<조선총독부관보 제3087호 9면(소화 12년 5월 4일)>, 동년에 '기독교회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940년 6월초에 채이스 가족이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들어가고, 존 J. 힐(John J. Hill) 가족마저 미국정부의 철수 명령으로 그해 11월 16일 귀국함으로써 선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채이스는 선교

부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듬해인 1941년 2월 24일 서울에 도착하여 3월 23일까지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핍박아래 한 달간 체류하는 동안 제3대 기독교회포교관리자로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 목사를 제출하였다<“김요한은 교회들의 법적 대표로서 저자를 대신합니다.” KM, 1941년 5월호, “The Korean Christian Mission(In Retrospect),” KM, 1946년 5월호>; 조선총독부관보 제4256호 13면(소화 16년 4월 2일)>. 그러나 채이스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회들은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 동방요배 등을 거부함으로써 온갖 곤욕을 치렀고, 1944년 6월 30일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소, 포교자 및 포교관리자폐지계가 차례로 제출됨으로써 모두 문을 닫았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제5387호 3면(소화 20년 1월 23일)>.

동석기 목사 또한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및 ‘기독교회’(남대문동)와는 별개로 1937년 5월 12일 ‘기독교회’(基督の教會)란 교단명칭으로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88호 5면(소화 12년 8월 30일)>. 이로써 일제강점기 말에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요츠야선교부), ‘기독교회’ 및 ‘기독교회’가 각각 별개로 활동하였다.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와 ‘기독교회’는 현재 협의회와 총회의 전 교단명칭들이었고, ‘기독교회’는 현재 교역자회의 전 교단명칭이었다.

해방 직후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선교부’와 산하 ‘기독교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의교회’로 재건되었다. 기독교회선교부는 존 힐 선교사를 거쳐 1955년 11월에 입국한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리스도의교회’라는 명칭이 문서에 쓰인 가장 이른 시기는 1946년 8월이다. 성낙소 목사가 작성한 ‘그리스도의교회 합동 선언문’(서울 사직공원 내 그리스도의교회 성낙소 선언서)에서이다. 다시 성낙소는 1952년 7월 3일에 발행한 책, <신약교회 목회학>(그리스도의교회신학교출판부)에서도 ‘그리스도의교회’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의 시작



William D. Cunningham
(1864.07.19-1936.06.24)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인물로서 최초로 한국 땅을 밟은 인물은 일본에 주재한 독립선교사들이었던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도쿄)과 M. B. 매든(Madden, 오사카)이었다. 그 때가 1907년이였다. 그들은 중국 상해에서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리는 중국개신교선교일백주년대회(China Centenary Missionary Conference)에 참석차 가는 길이였지만, 그들이 배를 타고 상해로 곧바로 가지 않고 한국을 찾은 것은 한국이 선교사들에게는 기회의 땅, 곧 수확을 기다리는 황금들판으로 알려져 있어서 직접 눈으로 확

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이 평양에 체류하여 교회들을 방문한 때는 평양대부흥운동의 절정기였다. 1907년 1월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평양대부흥운동은 동년 6월까지 절정에 달하였기 때문이다. 커닝햄과 매든은 평양에서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모인 1,200여명이 일제히 그러나 일사분란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평양대부흥운동의 폭풍의 핵을 목격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로 커닝햄에게 한국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행 16:9)는 동양의 마케도니아가 되었다. 그러나 커닝햄은 선교비의 부족으로 그 비전을 당장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며 기도만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년 후인 1909년에 간접선교의 기회가 주어졌다. 일본 도쿄주재 요츠야(四谷)선교부(Yotsuya Mission)에서 침례를 받고 성경훈련을 받았던 어떤 한국인이 서울 YMCA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는 동안에 몇 명의 한국인 개종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이뤄진 최초의 비교파 신약성경기독교 개종자들이었다[<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 이하 TC) 1917년 11월호와 1927년 7월호]. 그러나 이 작은 시작도 지속적인 사역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만 수확을 기다리는 세계 최고의 황금들판인 한국선교를 위해서 매년 1,000달러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홍보만 할뿐이었다<TC, 1917년 11월호>.

커닝햄의 기도는 1923년에 가서야 비로소 응답되었다. 미국 아이오와(Iowa) 주에 거주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한국에 선교기지(포교소)를 세울 수 있도록 2천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힘입어 커닝햄은 그해 9월에 선교기지를 세우기 위한 ‘땅 밟기’를 계획하였으나 불행하게도 9월 1일에 도쿄와 요코하마(横浜) 일대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TC, 1923년 9-10월호> 한국에 선교기지를 세우는 일은 지진피해수습이 거의 끝난 이듬해 1924년 3월 말에 가서야 실행에 옮겨질 수 있었다. 한국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600달러가 이미 입금된 상태였다<TC, 1924년 3월호>.

윌리엄과 에밀리 보이드(Emily Boyd) 커닝햄 부부는 1924년 3월 25일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수일간 머물며 직접 선교기지(포교소)를 세우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며 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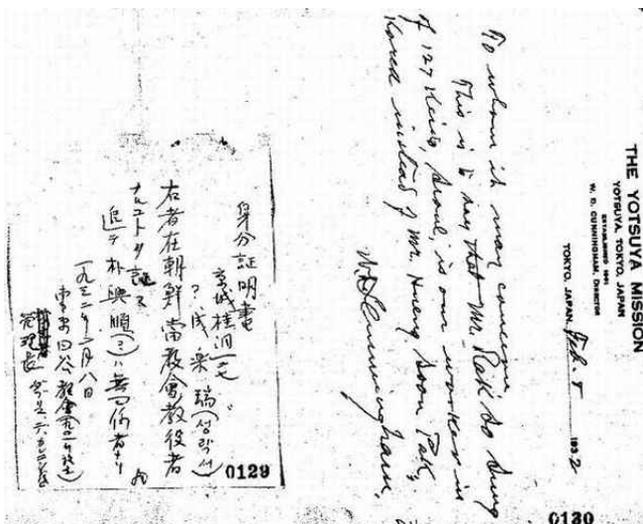
조선선교(한국인그리스도의)교회(1924-45)를 섬긴 요츠야선교부의 사역자들 상좌측부터 이원균(1924.10-1927, 박제곤의 뒤를 이임), 김광호(1927.중반-29.03), 박흥순(1929.04-31, 1930년 4월 27일에 선교기지를 교회로 승격 시킴), 하좌측부터 이성룡(1930.04-31), 성낙소(1931.09-36.01, 기독교회 사목 선교회 포교책임자), 이인범(1936.01-43.09,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책임자)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일을 위해서 도쿄(東京) 제1교회에 다니던 유학생 박제곤이 커닝햄 부부보다 일주일전에 서울에 들어와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였다<TC, 1924년 6월호>. 요츠야선교부는 1924년 5월에 박제곤을 한국에 보내 선교기지를 개척하도록 하였다<TC, 1927년 7월호>. 그러나 박제곤은 복음사역을 반대한 부친의 반대로 사역을 중단하였고, 그를 대신해서 이원균이 10월에 파송되었는데, 그는 1927년 중반까지 서울에 기

독교회선교기지를 세우고 일요학교들을 여는 사역을 수행하였다. 이원균이 경성성서학원(성결교) 입학 을 위해서 사임함으로써 1927년 중반부터는 김광춘이 이어받아 사역하였고, 도쿄 미카와시마(三河島)조선기독(조선인그리스도의)교회 박홍순 목사가 그의 뒤를 이어받았다<TC, 1929년 11월호>. 곧이어 이동혁이 추가로 서울에 투입되었다. 박홍순 목사는 1929년 3월 36일 귀국하여 4월부터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로 섬겼다. 1929년 서울에는 4개의 선교기지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에 선교기지(포교소)가 출범한 지 만 6년만인 1930년 4월 27일 드디어 최초의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가 조직되었다. 선교기지도 늘어서 6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이성록이 추가로 서울에 투입되어 늘어난 두 곳을 맡아 운영하였다<TC, 1930년 6월호>.

한편 커닝햄은 한국선교를 시작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쿄 미카와시마(三河島), 후카가와(深川) 및 요코하마(横浜)에도 한국인들을 고용하여 선교기지들을 세웠고 ‘조선기독(한국인그리스도의)교회들’로 발전토록 하였다. 이 시기 곧 1927년 3월에 일본에 입국하여 1934년 11월 미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존과 와네타 채이스((John Trawrick and Wahnetta Smith Chase) 부부는 요츠야선교부에서 7년 8개월 동안 월급 선교사로 사역하였다. 따라서 채이스는 1931년 1월부터 9월 무렵까지 요코하마조선기독교회를 담임한 성낙소와 그밖에 이인범, 이원균, 윤낙영을 비롯한 다수의 한국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잦았고 일본주재 조선기독교회들을 돕거나 감독하기도 하였다. 이들과는 수년 후 한국에서 동역자로 혹은 경쟁자로 인연이 이어졌다. 참고로 채이스는 1931년 9월 하순에 한국 선교 사역을 시찰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한바가 있다<TC, 1931년 11월호>. 채이스는 서울에 1개의 교회와 여러 개의 일요(주일)학교들(Bible Schools)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때는 성낙소가 요츠야선교부로부터 1931년 9월 중순경에 박홍순을 대신할 조선기독교회들의 포교책임자로 임명받고 귀국한 직후였다. 성낙소가 커닝햄의 초청을 받고 일본에 건너간 때는 1930년 5월이었으며 이듬해 9월 무렵까지 줄곧 요코하마에서 사역하였다.

3.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일리엄 D. 커닝햄이 작성한 성낙소의 신분증명서(1932년 2월 8일)

성낙소 목사가 귀국한 이유는 사모의 건강문제 때문이었다. 때마침 요츠야선교부는 박홍순 목사(장로교 출신)를 교체할 능력 있는 설교자를 찾고 있었다. 한의학에 밝았던 성낙소가 한국에 남아있는 사모의 건강을 다스리기 위해 귀국하기를 원하자 요츠야선교부는 그를 서울(京城) 계동 127번지에 있었던 제1교회의 목회자로 임명하고 1931년 10월부터 사역

하여 요츠야선교부 제15번째 교회로 발전시킨 인천 난도(남동)교회를 돌볼 책임을 맡겼다<TC, 1931년 12월호, 1932년 1월호, 6월호>.

성낙소는 1931년 “11월 15일에 경성에 도착하여 계동에 거주하며”[성낙소, ‘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이하 자서전)](1960), 김종기, 조동호 편집(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0)] 포교책임자 직책을 1936년 1월 10일까지 합법적으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그가 도쿄의 요츠야선교부로부터 파송된 포교관리자로서 직책을 수행한 기간은 1933년 5월 20일까지 만 20개월에 불과하였다. 이 짧은 기간에 성낙소가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로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남긴 가장 큰 업적은 합법적인 교단이 되게 한 것이었다. 성낙소는 1932년 6월 11일 최초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라는 이름의 교단을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신고)하여 8월 26일자 관보에 실리게 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1692호 6면(소화 7년 8월 26일)>, 1932년에 서울의 2개 교회 및 1933년에 인천송현교회를 위해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으며, 또 자신과 김문화 목사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 설치를 <조선총독부 관보>(1932년 8월 26일자)에 게재하기 위한 기안서

성낙소는 1932년 12월 17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경성교회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경성교회에 성낙소의 포교담임자계를, 24일에는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교회에 김문화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원동)의 포교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1829호 6면(소화 8년 2월 15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교회에 김문화의 포교담임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57호 6면(소화 8년 3월 20일)>. 또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거주)는 1932년 1월 1일 이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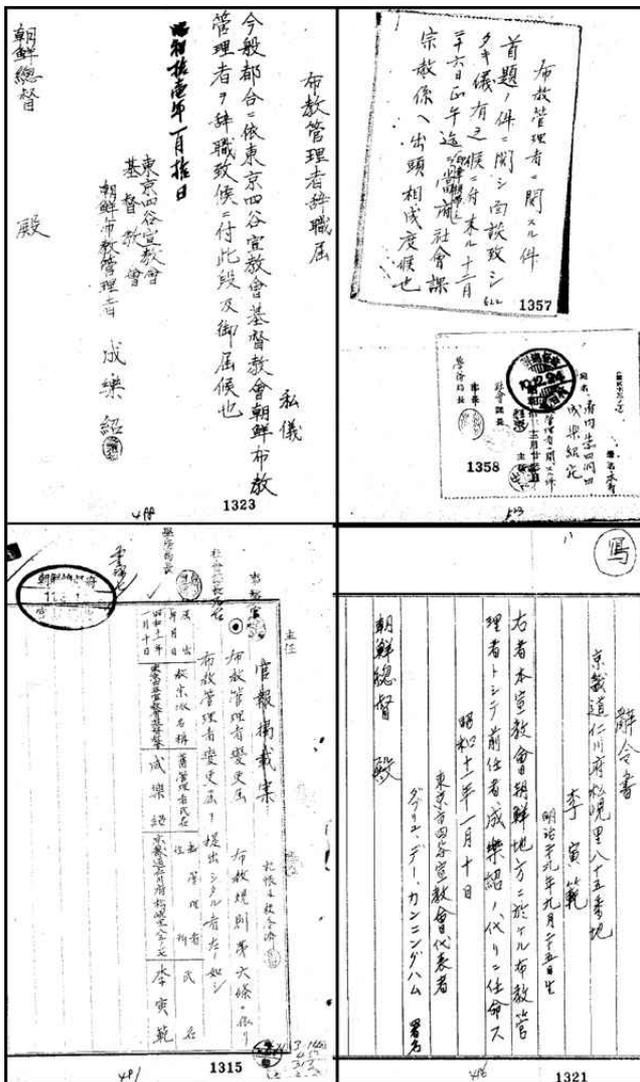
감독 목회(매월 세 번씩 주일 오후에 설교)하며<TC, 1932년 8월호> 요츠야선교부 제16번째 교회로 승격시킨<TC, 1933년 6-7월호, 1934년 11월호>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인천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를 1933년 2월 1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의 포교담임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82호 9-10면(소화 8년 4월 20일)>.

1924년 5월부터 1933년 5월까지 만 9년간 조선 땅에서 펼쳐진 요츠야선교회의 선교

열매는 성낙소가 제출한 이 세 개의 포교소가 합법적인 면에서 보면 전부였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츠야 선교부가 이인범을 조선기독교교회포교관리자로 파송키 위해서 성낙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였기 때문에 상황이 심하게 틀어져버렸다. 이인범은 요츠야선교부로부터 1933년 6월 5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로 임명받고 동년 9월에 시무하던 도쿄 후카가와(深川)조선기독교회를 사임하고 입국하여 기독교회 인천송현교회를 맡아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1936년 1월 10일이 되기까지 조선총독부의 비협조로 합법적인 포교관리자로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나마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윌리엄 커닝햄 선교사의 집요한 노력과 사이토 마코토(齋藤 実, 자작)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이토 마코토는 조선총독부에 종교과를 신설하여 기독교에 우호 정책을 펼쳤던 조선총독부 총

독(1919-27, 1929-31) 및 일본 정부 수상(1932-1934)을 지낸 자로서 부부가 커닝햄 부부와 절친한 이웃이자,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선교를 구두(口頭)로 허가한 인물이었다. 커닝햄은 마코토의 구두허가를 합법적인 허가로 착각하였던 것 같다.

커닝햄은 마코토 자작에게 보낸 1935년 10월 11일 편지에서 성낙소가 “무능하기 때문에,” 11월 16일에는 성낙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해임하였다고 하였고, 동년 12월 11일 조선총독부(Chosen Sotokufu, Keijo, Chosen)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는 “성씨를 1933년 5월 20일 해임하였다”고 하였다. 또 성낙소는 요츠야선교회의 대적자이고, “자기가 해고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면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소화 11년도서류, 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그러나 커닝햄이 성낙소를 해임시킨 것은 성낙소가 무능했거나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포교관리자 자리를 탐낸 이인범의 모략



상우측은 조선총독부가 성낙소 목사에게 발송한 소화통보서(전보), 상좌측은 조선총독부에 소환된 성낙소가 쓴 포교관리자 사직계, 하우측은 커닝햄이 성낙소 대신에 이인범을 포교관리자로 임명한 사령서, 하좌측은 이인범이 제출한 포교관리자변경계. 성낙소의 사직계, 커닝햄의 사령서, 이인범의 관리자, 관리사무소 등의 변경계 들은 모두 날짜가 동일한 소화 11년 1월 10일이다.

유동, 금곡동), 서울에 3개(계동, 수창동, 아현동, 기타), 평북 구성군에 2개(방현면, 오봉면), 평북 정주군에 2개(용포동, 근담동), 평안남도(현 황해북도) 중화군 동두면 대류리에 1개, 경남 마산에 1개, 총 12개의 교회와 일본 미카와시마(三河島), 후카가와(深川) 및 요코하마(横浜)에 총 3개의 조선기독교교회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총괄하였다. 이 15개의 교회는 커닝햄이 1901년부터 1935년까지 미국인 선교사들과 일본인 및 한국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35년간 세운 총 28개 교회들의 약 54퍼센트에 달하며, 그것도 커닝햄의 총 선교사역기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이뤄진 업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아쉬운 것은 이들 교회들 가운데 단 한 곳도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4.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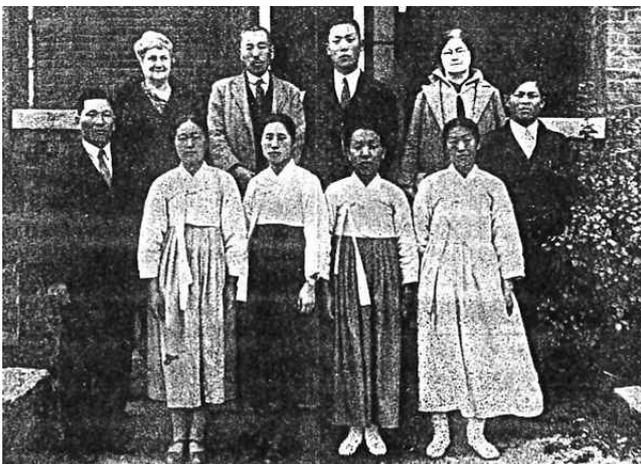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선교사가 소천 3개월 전 토마스 히치(Thomas G. Hitch) 선교사와 방문했던 인천성경기독교교회(1936년 3월)

커닝햄 선교사의 소천이후 조선기독교교회들은 포교관리자였던 이인범 목사의 주도아래서 조금씩 발전되어 갔다. 아현동에 서울성경훈련원이 세워졌고, 몇 차례 조선기독교교회들을 순회 방문만 했던 토마스 히치(Thomas G. Hitch) 선교사가 서울에 주재(駐在)하면서 가족과 함께 서울성경훈련원을 운영하였다. 1937년에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Emily Boyd Cunningham)이 쉘멜(Shimmel) 선교사와 함께 순방하였고, 오웬 스틸(Owen Still) 선교사가 몇 차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교회들을 순방하였다.

이인범이 1936년 1월 10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와 포교관리자



서울 제2교회 성경공부반(이인범이 매일 2시간씩 강의, 1937년) 뒷줄 좌측부터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Emily Boyd Cunningham), 이난기 담임목사, 이인범 목사, 쉘멜(Shimmel) 목사와 선교부 선교사

주소변경계(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가 받아드려진 이후<조선총독부관보 제2752호 12면(소화 11년 3월 18일)>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일이 교파명변경과 성낙소 목사와 김문화 목사를 면직시킴과 동시에 성낙소 목사의 행적을 철저히 세탁한 것이었다. 이인범은 1936년 7월 8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에 포교관리자 사무소를 둔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변경계를 제출<조선총독부관보

June 25th, 1936
昭和十一年六月二十五日

朝鮮總督 殿
To Whom to be Concern:

We have much pleasure in use the name "Church of Christ" trusting that you can allowed to change the name Tokyo Yotsuya Mission into "Church of Christ for Korea". We are trying to get away from all denominational practices and therefore, we must not change the name of our Church of Christ, any more in the future.

Concerning this matter will be appreciated.
Your truly,
W. D. Cunningham

WDC 33

W. D. Cunningham
ワグニユ.デー. カニニングハム

June 25th, 1936

To Whom to be concern:

We have much pleasure in use the name "Church of Christ" trusting that you can allowed to change the name Tokyo Yotsuya Mission into "Church of Christ for Korea". We are trying to get away from all denominational practices and therefore, we must not change the name of our Church of Christ, any more in the future. Concerning this matter well be appreciated.

Yours truly,
W. D. Cunningham.

이인범은 커닝햄이 교파명변경을 허락한 "Church of Christ for Korea" 법명을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변경하여 조선총독부 한국 사헌부에 교파명 변경결례 제출서류에 첨부하였다.

0450

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43호 9면(소화 12년 7월 8일)>. 이로써 성낙소와 김문화는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포교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인범은 성낙소 이름으로 신고된 것들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세탁시켰다. 이 때문에 인천송현성결교회는 성낙소가 이

제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일) 하였고, 9월 4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 거주)와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원동정 8의 4번지 거주)의 포교폐지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이뿐 아니라, 이인범은 1936년 9월 4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의 구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 거주)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042호 6면(소화 12년 3월 9일)>, 동년 12월 23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

선선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9번지)의 구포교소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43호 9면(소화 12년 7월 8일)>. 이로써 성낙소와 김문화는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포교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인범은 성낙소 이름으로 신고된 것들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세탁시켰다. 이 때문에 인천송현성결교회는 성낙소가 이인범보다 앞선 포교소설립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였다.

1936년 9월 4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부터 포교자폐지를 당한 성낙소와 김문화는 1936년 11월 7일에 '기독교회' 선교사로 입국하여 서울 송월동(개이조 쇼계추조 32-6번지)에 거주하게 된 채이스 선교사와는 각각 1937년(김문화)과 1938년(성낙소)에 재회하였다. 채이스는 1927년에 일본 도쿄로 건너가 1934년 10월까지 요츠야선교부의 월급 선교사로 헌신했었고, 1930년대 초 성낙소와 한국 기독교회 개척지에서 사역한 김문화도 요츠야선교부의 월급 사역자였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였다. 하지만 성낙소와 그의 교회는 1939



존 T. 채이스 및 윌리엄 D. 커닝햄(1930년초 일본 도쿄) 이인범(삼천포선기독교회) 및 류지풍(삼천포선기독교회)

년에 가서야 채이스의 제3호 교회로 편입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성낙소가 채이스와 재회하기 직전에 적선정에 있던 경성기독교회를 내수정 106의 1번지로 옮겨와 ‘조선야소교회’에 막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조선야소교회는 1938년 3월 3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번지 거주)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4024호 3면(소화 15년 6월 21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60번지 거주)의 경성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성교회에 성낙소 목사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38호 4-5면(소화 15년 7월 8일)〉. 성낙소는 조선야소교회에 적만 두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침례와 매주일 주의 만찬을 시행하는 기독교회를 하고 있었고, 채이스와 재회한 때로부터 송월정 32번지 서울성경훈련원에 출석하여 김요한, 최상현, 김문화, 백낙중, 박판조 등과 함께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를 연구하였다.

1936년부터 해방 전까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신고)한 포교관리자들과 포교소들 및 포교자들은 다음과 같다.

제1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 이인범 목사(1936.07.08.-1943.09.17.)

1936.09.04. 인천 송현기독교회(신신근) 및 유정기독교회(김영배)의 포교계 및 성낙소, 김문화의 포교폐지계.

1936년 12월말까지 성낙소 명으로 된 모든 기록을 이인범 명으로 변경계 제출.

1937.05.10. 평북 구성군 오봉기독교회(장신주) 및 방현(Hoken)기독교회(김성산).

1937.05.12. 경성부 마장정기독교회(김상익), 평북 정주군 용포동기독교회 및 문인동기독교회(최성진).

1937.06.21. 인천 금곡정기독교회(정삼선).

1937.10.31. 인천 유정(柳町/柳洞/Yanagicho)기독교회를 ‘화정(花町)기독교회’로 포교소명칭변경계 제출.

1937.11.04. 마산기독교회(김태희), 경성부 염리기독교회(이난기).

1938.08.22. 영등포기독교회(윤낙영) 제출.

1939.01.31. 대구부 덕산정기독교회(김태희).

1940.03.09. 마산기독교회(송기준).

1940.03.11. 인천부 대화정기독교회(임준식).

1940.03.15. 신마산기독교회(송기준) 및 구마산기독교회, 북마산기독교회.

1940.08.19. 경성부 대흥정기독교회(임공철).

1942.02.01.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현천리기독교회 제출.

제2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 평산 무웅(신신근) 목사(1943.09.17.-해방 때까지)

1943.09.30 이인범의 포교폐지계.



조선기독교교회(1924-45)를 섬긴 요츠야선교부의 사역자들 (연도는 사진 촬영시기). 상좌측부터 이원균(1934.12.15. 방현교회 제2대), 김성산(1937년, 방현교회 제2대), 주정국(1935년, 방현교회 제3대), 하좌측부터 최성진(1937년, 방현교회 장로, 동포동교회와 문인동교회 사역자, 독립운동가, 201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음), 장신주(1936년, 오봉교회), 윤현규(1935년, 동포동교회 집사, 예배당 부지 기증자, 케냐행이 발행한 1936년도 달력 2월에 실린 사진)

해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현기독교교회에는 세 명의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두 명이 부자(父子)간으로서 내과 의사들이었다. 아버지(Y. D. Cheh)는 원로장로였고, 아들(R. R. Cheh)은 시무장로였다. 부목사와 여전도사가 있었고, 집사가 10명, 교인이 170여명이었다. 평안북도 구성군과 정주군의 기교회들은 대체로 1932년 말 혹은 1933년 초부터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동경 미카와시마(三河島)조선기독교교회로 자리를 옮긴 1937년 초까지 4년 반 정도 방현기교회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일어로 Hoken)기교회의 1935-36년 모습. '기교회'라고 쓴 현판을 건 본당에 600명이 앉을 수 있었다. 이원균 목사는 1933-37년까지 담임하였고, 1936년에 교인이 173명, 장로가 3명, 집사가 7명이었으며, 새 예배당 건축 후 구 건물에 유치원이 입주 하였다. 건물은 1935년에, 성도들은 1936년에 촬영 되었다. 뒷줄에 양복을 입은 네 사람은 좌측부터 이원균 목사, 토마스 헛치 선교사, 김영배(동역), 이인범 목사이다. 우측에 양복을 입은 두 사람은 나라의사 가족인 아버지와 아들 장로들로 추정된다.

1943.09.30 아현정기독교회 포교담 임자변경계(이인범을 송산 의웅으로).

1944.09.30 염리정기독교회 포교담 임자변경계(이난기를 유지욱으로).

이 밖에도 계출되지 아니한 교회들이 여러 개 더 있었다. 계출된 교회들 가운데 인천송현기독교회와 평북구성군의 방현기독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한 상당히 큰 교회들이었으며 유지욱을 운영하였다. 송현기독교회는 해방직후 담임목사 신신근이 별세한 지 8일 만인 1946년 12월 10일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재건되었으나 방현기독교회는 해방 후 공산치하에서

평안북도 구성군과 정주군의 기교회들은 대체로 1932년 말 혹은 1933년 초부터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동경 미카와시마(三河島)조선기독교교회로 자리를 옮긴 1937년 초까지 4년 반 정도 방현기교회를 담임목사로 섬긴 이원균의 영향 아래 세워진 것들이다(TC, 1933년 7월호, 1936년 2월호). 이들 북한 기교회들에서 몇몇 젊은이들이 서울 아현동 성경훈련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이인범 목사가 요츠야선교부로부터 조선기독교회 포교관리자로 임명받고 1933년 9월에 입국하여 1943년 9월 30일 포교폐지계가 계출될 때까지(조선총독부관보 제5024호 20면(소화 18년 10월 30일)) 만 10년간(합법적으로는 7년 8개월간) 이룬 업적과 활



조선기독교회(1924-45)를 섬긴 요츠야선교부의 사역자들
(연도는 사진 촬영시기)

상좌측부터 신신근(1936년, 인천송현교회), 정삼선(1937년, 인천송현교회 및 인천금곡동교회 개척자, 서울성경훈련원 1940년 졸업), 김영배(1937년, 동역 및 인천 유정/화정교회 개척자), 하좌측부터 이난기(1936년, 서울 제2교회), 김상익(1936년, 서울 제3교회, 서울성경훈련원 1940년 졸업), 김태희(1936년, 마산기독교회).

동내용은 앞서 열거한 ‘기독교회 조선선교회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신고)한 포교소들과 포교자들’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것들은 <조선총독부관보>에 실린 객관적인 자료에 불과하다. <도쿄 그리스도인>에는 이보다 훨씬 많고 왕성한 이인범 목사의 활동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다. 다만 북한의 기독교회들은 이원균 목사의 영향 아래 세워진 것들이어서 이인범 목사가 비록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였을지라도 그의 영향력은 주로 서울, 인천, 대구 및 마산에 국한되었다. 재직기간동안 이인범은 자신의 부흥강사 자질로 큰일을 해냈으나 정작 자신이 담당한 서

울 제1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지는 못하였다. 선교부에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후원이 끊기면 부족한 생계비를 채우기 위해서 일주일에 3일만(수, 토, 일) 교회를 위해 일하고, 나머지 4일은 나가 돈을 벌겠다고 말할 정도로 교회사정이 어려웠다. 서울에는 이인범 목사가 시무한 제1교회(아현동) 말고도 마장동기독교회(김상익), 염리기독교회(이난기), 영등포기독교회(윤낙영), 대흥동기독교회(임공칠)가 있었으며, 성경훈련원(신학교, 아현동)에서 배출한 남학생들(정삼선, 김상익, 임준식, 임공칠)은 기독교회들을 개척하였고, 여학생들(임화순, 이권신, 평화일)은 여전도사로 개척된 기독교회들을 섬겼다.

1941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새로운 종교법으로 인해서 일본과 한국의 교회들은 해외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해 말에 터진 태평양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선교사들이 모두 본국으로 철수하여 1947년에 이르기까지 최소 5년간 모든 선교부가 폐쇄되고 후원이 중단되어 미자립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동방요배와 신사참배 및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로의 통합에 반대했던 한국의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목회자 상당수가 경찰서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거나 투옥되었다.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포교책임자였던 이인범 목사는 모진 매를 맞았다(TC, 1940년 9월호). 이점에 있어서는 기독교회(남대문통)의 포교책임자였던 김요한 목사와 소속 목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김요한 목사는 해방 전 세 차례나 수감되었다가 풀려났다<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1947년 5월호)>.

요츠야선교부의 월간지, <도쿄 그리스도인>(TC)에서 한국선교를 중단한 1941년 이후 한국교회들에 관한 기사는 일체 없었다. 선교부가 본국으로 철수한 5년간의 공백은 너무 컸고, 세계대전 중이어서 생존 자체가 힘겹던 시절이었다. 1940년대 한국 그리스도

(인)의교회들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포교관리자 이인범), 기독교회(포교관리자 존 T. 채이스), 기독교회(포교관리자 동석기)를 통틀어 30개가 조금 더 되었고, 이 가운데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했던 교회는 평북 구성군의 방현기독교교회와 인천의 송현기독교교회 정도였다. 이뿐 아니라, 이들 교회들은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가입하는 것과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대부분 흩어지거나 지하로 숨어버렸다. 그리고 해방 후까지 생존했거나 복원된 교회는 신신근 목사의 인천송현기독교교회, 이난기 목사의 용산교회, 윤낙영 목사의 아현동교회 정도였다. 요츠야선교부와 관계했던 목회들 가운데 포교관리자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에 합류한 사람들은 성낙소, 김문화(1949년 2월초에 별세), 이난기(1948년경에 합류, 당시 68세), 윤낙영(해방 이듬해인 1946년 기독교장로회 증평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성낙소의 권유로 합류, 김은석 목사와의 친분이 있었음. 6·25동란 때 피난 갔다가 1955년 7월 6일 영등포침례교회 제3대 목회자로 부임)뿐이었다. 평안북도에 세워진 교회들에 대한 소식은 <도교 그리스도인>지에 전혀 언급이 없는데다가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생사를 알 길이 없다. 이점에 있어서는 동석기 목사가 고향 함경남도 북청군에 세운 10여개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이다. 인천유동교회와 금곡동교회는 일제의 탄압을 견기지 못하고 인천송현기독교교회와 통합하였고, 담임목사 신신근이 별세한 지 8일 만인 1946년 12월 10일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재건되었다. 인천송현기독교교회가 성결교회가 된 데에는 이인범과 이원균을 비롯해서 김상준, 신신근, 박영선, 주정국, 윤낙영 등 요츠야선교부의 대부분의 한국인 사역자들이 성결교회 출신들이었고, 요츠야선교부는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1941년 3월말 이후 한국선교를 중단하였을 뿐 아니라, 채이스 선교사 측의 사람들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커닝햄이 한국인 여호수아와 알렉산더 캠벨로 불렀던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 이인범 부흥 목사



커닝햄 선교사(1935-36년경)

커닝햄은 이인범(인천송현기독교교회, 좌)을 조선의 알렉산더 캠벨 또는 여호수아로, 이원균(평북 구성군 방현기독교교회, 우)을 조선의 발통 스톤 또는 갈렙으로 치켜세웠다. 그러나 그들은 해방 후 장로교단 또는 침례교단에 배척을 문었다.

마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수하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저버리고 장로교회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성결교단으로부터 제명당한 후에 '기독교회' 곧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사역자로서 젊음을 바쳤던 이인범 목사의 1943년 9월 이후의 흔적은 금산제일교회 연역에 나타난 것이 전부이다. 그는 1949년 1월 3일 금산제일교회에 부임하였고, 1951년에 금산에서 향년 55세로 별세하였다.

이원균 목사는 미카와시마(三河島)조선기독교회를 시무할 당시인 1941년 1월 21일 일본인 목회자들 4명과 이성영 후카가와(深川)조선기독교회 목회자와 함께 선교부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기독교단'이란 통합교단에 가입하기로 가결시켰다(TC, 1941년 4월호). 이때는 해외로부터의 선교후원을 금지

한 종교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었고, 실제로 그 법은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이성영과 이원균에게 주어지던 선교부의 후원은 중단되었고, 동포들이 조국으로 귀국하거나 흩어짐으로써 생활이 어렵게 되어 귀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귀국 후 이원균이 평북 구성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 무렵 선교사들은 모두 본국으로 철수하였고, 일본과 한국의 교회사정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도쿄 그리스도인>에서조차도 일체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한국침례교 인물사>에서는 이원균이 1955년 침례교단으로 이적하기 전까지 평양신학교 이사장과 예수교 장로회 함남 노회장을 역임한 것으로 적고 있다.

이 무렵에 이원균은 <율법과 복음>이란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은 비교파 신약성경기독교를 위해서, 윌리엄 커닝햄 선교사로부터 한국의 갈렙 또는 한국의 발톤 스톤이라 불리며, 20여 년간 헌신한 자신의 사역들에 대한 배신의 글이었으며, 알렉산더 캠벨이 1816년 9월 1일 레드스톤 침례교협의회(Redstone Baptist Association)에서 행한 ‘율법에 관한 설교’와는 상반된 내용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원균은 비교파 신약성경교회에서 침례교단으로, 알렉산더 캠벨은 침례교단에서 비교파 신약성경교회로 자리바꿈을 함으로써 피차 상반된 길을 걸었다. 이원균 목사는 1955년 침례교로 이적하여 부산 충무로 침례교회를 담임하였다. 침례교 총회에서 두 차례 교육부장을 역임하였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침례신학교에서 가르쳤으며, 1966년에는 신학교 교장으로 봉직하였다. 이원균 목사는 1969년 12월 6일 향년 82세의 일기로 소천하였다.

이원균 목사는 성결신학, 그리스도의교회 신학, 장로교 신학을 거쳐 결국 침례교단에 안착하였다. 그리스도의교회와 침례교회는 칼뱅주의를 빼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고, 그리스도의교회처럼 펜윅도 교파명이 아닌 ‘기독교회’란 명칭을 고집하였으므로 많이 닮아 있었다. 이원균 목사가 펜윅의 가르침을 받고 “고민하던 의문점들이 하나씩 풀려지면서 가슴이 후련해졌다”고 하였지만, 펜윅 선교사는 침례교회를 세운바가 없고, 그가 한국에 세운 교회들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침례교회가 아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원균은 그리스도의교회의 가르침과 달리, 그의 <율법과 복음>이란 책의 저술에서 보듯이, 어느 정도는 칼뱅주의에 경도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조선 ‘기독교회’를 위해 헌신한 요츠야선교부 소속 선교사들

1) 커닝햄 Cunningham, William D. 1864.7.19.~1936.6.24.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목사, 선교사.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트론 타운십(Lower Tyrone Township)에서 농사짓는 메튜 커닝햄(Matthew Cunningham)과 리디아 뉴커머(Lydia Newcomer Cunningham)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농사일을 하며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분위기의 가정에서 보냈다. 어린 커닝햄의 장래 희망은 대학을 졸업하여 교사가 되는 것으로 1887년 여러 해 동안 일하며 저축한 돈으로 캘리포니아 주립사범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나



요츠야선교부가 제작하여 배포한 1936년도 1월 달력에 실린 윌리엄 D. 커닝햄과 에밀리 보이드 부부. 커닝햄은 당해년 6월 24일 미국에서 소천하였다. 천안독립기념관 소장자료실에 이 달력이 있다.

4년 후 그의 나이 27세 돌연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고, 그리스도의교회의 정신으로 세워진 베다니대학(Bethany College)에 2학년으로 편입하였고 이곳에서 그의 미래 복음사역에 유익한 많은 경험을 쌓았다.

베다니대학 졸업 후 1894년 7월 29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성 도마교회(St. Thomas Church)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였다. 목회 시절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동일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던 에밀리 B. 보이드(Emily

Blackstone Boyd)를 만나, 1898년 6월 2일 결혼하였다. 갓 결혼한 커닝햄 부부는 신혼여행 기간에 해외그리스도인선교회(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1875년 창립)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일본 선교를 제안 받고 준비하였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커닝햄의 몸에 이상이 생겨 선교사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후 커닝햄 부부는 총 4년에 걸쳐 네 차례 더 지원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매번 불가 판정을 받았다. 결국 커닝햄 부부는 독립선교사 신분으로 일본에 가기로 결정했다.

커닝햄 부부는 190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차이나(China) 호에 승선하여, 10월 1일 일본 요코하마(橫濱)에 도착하였다. 도쿄(東京)에서 생계를 목적으로 시간제 교사로 영어를 가르쳤고, 얼마 후 일본 귀족대학에 영어 강사로 채용되었다. 도쿄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인 1901년 11월 1일 선교기금 모금의 방편으로 월간 선교소식지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1902년 선임 선교사들로부터 요츠야(四谷)선교부를 인수받고, 이곳을 선교본부로 삼고 선교활동을 전개했다.

커닝햄의 지도 아래 수행되는 요츠야선교부의 선교사역에는 분명한 선교정책, 즉 선교 목적과 전략이 있었다. 선교 목적은 선교지에 자립(자전, 자치, 자급)하는 토착교회를 설립하는 것이고, 선교 전략은 여러 분야의 사역들 가운데 복음전도(교회개척)와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교육에서는 성경교육이 강조되었다. 성경교육은 초신자 교육과 본토인 사역자 교육으로 구분되었다. 초신자 교육은 주일과 주중 개설된 성경 관련 교육이고, 본토인 사역자 교육은 교회와 관련 기관에서 사역할 본토인 사역자를 양성하는 교육이었다.

커닝햄은 선교 초기부터 일본인 젊은 교인들을 가르쳐 오다가, 1905년부터 사역자반(Workers' Class)을 개설하여 지도하였다. 이후 요츠야선교부는 선교부 교회의 담임 사역자가 자체적으로 젊은 교인들을 사역자로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게 했다. 요츠야선교부의 일차적 선교대상은 일본인이었으나 1923년부터 그 대상을 한국인으로 확대하였다. 요츠야선교부가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커닝햄이 1907년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모리슨100주년기념국제선교사대회'(Morrison Centenary Missionary Conference)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하면서 부터였다. 당시 한국은 평양대부흥운동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로 커닝햄은 이때 1,200명의 교인들이 모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부흥회를 목도하

고 큰 감동을 받아, 한국에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개척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요츠야선교부의 본격적인 한국인 선교는 1923년 이후 도쿄와 요코하마에 사는 재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동 선교부는 선교부에서 훈련을 받은 신실한 한국인 교인들을 도쿄와 요코하마에 파견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도쿄에 2개, 요코하마에 1개의 한국인 교회를 세웠다. 1931년 9월 선교부 제7교회[미카와시마(三河島)조선인기독교회]의 담임 사역자 김상준이 한국인 사역자를 훈련하는 학교(Bible Training School for Korean Workers)를 개설했으나 그의 조기 사임으로 중단되었다. 개척된 한국인 교회들은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사역자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인 교회의 사역자들 중 요츠야선교부에서 훈련을 받은 사역자들은 극히 소수였고, 대부분은 타 교단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들로 이들은 선교회로부터 급료를 받고 사역하였다.

1924년 요츠야선교부는 한국인 사역을 한국으로 확장하고, 이원균, 박홍순 등을 사역자로 임명하여, 선교기지(포교소)를 개설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1930년 서울에 첫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선교사역은 한강 이북(평안북도)과 제물포(현재 인천) 그리고 한강 이남(마산 대구 등 주요 도시)으로 확장되었다. 1930년대 후반 제물포에서도 교회가 설립되었다. 제물포 제1교회(송현기독교회, 담임 사역자 신신근)는 1936년 9월 교회 자체적으로 한국인 사역자 교육 야간성경훈련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서울에서는 1938년 초 서울 제1교회(담임 사역자 이인범)가 커닝햄이 생전에 계획했던 한국인 사역자 교육 성경훈련원을 개설하고, 2월 중순 입국한 요츠야선교부의 선교사 히치(Thomas G. Hitch)의 지도 아래 운영하였다. 한국인 사역자를 훈련하는 서울의 성경훈련원은 히치의 조기 귀국 후에도 한국인 사역자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요츠야선교부가 한국 선교의 재정 지원을 중단한 1941년 3월 이후 문을 닫았다.

한국인 사역자 수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요츠야선교부 교회들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선교부 교회의 빠른 성장에 고무된 커닝햄은 1935년 4월과 1936년 3월 한국을 방문하여 교회들을 시찰하고, 이후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선교여행을 시작하였다. 5월 중순 캘리포니아 주를 출발하여 애리조나 주와 콜로라도 주를 거쳐 미네소타 주 로체스터(Rochester)에 도착한 다음날, 암 진단을 받고 때늦은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6월 24일 별세하였다.

커닝햄이 사망할 당시 요츠야선교부는 한국인 교회 15개(한국에 12개, 일본에 3개)를 세우고, 한국에 12명,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교회들과 유치원 및 주일학교들에 다수의 한국인 사역자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유해는 펜실베이니아 주 파예트 카운티 코넬스빌(Connellsville Fayette County)의 힐 그로브 묘지(Hill Grove Cemetery)에 안장되었다.

부인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Emily Boyd Cunningham)은 커닝햄 사망 이후 요츠야선교부를 이끌었고, 스틸 부인(Mrs. Owen Still)과 공동으로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의 전기 *The Flaming Torch*(1939)를 저술했다. 1953년 12월 25일 별세하였고 유해는 그녀의 요청에 따라 도쿄 도시마구(豊島區) 조시가야(雑司ヶ谷) 묘지에 안장되었다. 자녀로는 엘로이즈(Eloise, 1899년 9월 4일 미국 출생), 도리스 엘렌(Doris Elaine, 1902년 8월 29일 일본 출생), 룯(Ruth, 1906년 5월 7일 일본 출생), 커

닝햄 2세(William D. Cunningham Jr. 1912년 4월 12일 일본 출생)를 두었다. 차녀 도리스 엘렌은 1928년 7월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어 요츠야선교부의 사역을 보조하였다. 요츠야선교부 제1교회[후에 와카바(若葉)기독교교회]의 자리에 커닝햄기념교회가 설립되어 1938년 11월 20일 헌당되었다.

[참고문헌] [TC: Tokyo Christian]. TC 1901~1936; Mrs. W. D. Cunningham and Mrs. Owen Still, The Flaming Torch: The Life Story of W. D. Cunningham, Tokyo: The Yotsuya Mission, 1939;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1883-1983)", <http://www.bible101.org/japanmissions/page01.htm>; Board of Ministerial Relief of the Church of Christ: Application for a Pension Certificate; "Our Forth Anniversary", TC vol. V no.1 Nov. 1905; "Miscellaneous", TC vol. XX X no.12, Oct. 1931; Yotsuya Mission Calender, vol. 38 no.1, Nov. 1938; "Yotsuya Mission Annual Report: Timothy's", TC vol. XXX no.4, Feb. 1932; <https://www.findagrave.com/memorial/90192802/william-d-cunningham>;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역사』, 한성신학교, 1991; 백종구, "윌리엄 D. 커닝햄과 한국인 선교-동경 요시야선교회를 중심으로," 「신학논총」 (2012); 백종구, "도쿄 요츠야선교회와 제일 한인교회: 미카와시마(三河島)조선기독교교회의 개척과 성장(1901-1947)", 「한국교회사학회지」 53(2019); 백종구,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 쿤란, 2018; 오수강, 『基督의 敎會와 성낙소와의 관계』, 쿤란, 2007.

백종구(전 서울기독교대학교 교수)

2) 히치 Hitch, Thomas G. 캐나다 침례교회의 선교사, 호주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선교사.

영국인으로 캐나다 침례교회의 선교사로 부인과 함께 티베트 국경지대에서 다년간 사역하고, 일본에서도 7년간 사역했다. 티베트에서 두 자녀를 잃고 신경쇠약증에 걸린 이후, 남은 딸들의 교육을 위해 호주로 건너가 8년간 거주했다.

히치는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의 오랜 지인으로 그의 가족은 호주 멜버른 에센돈(Essendon) 그리스도의교회(Church of Christ)의 교인으로, 동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일본 요츠야선교부의 임시직원으로 오게 되었다. 딸 애니(Annie)와 함께 1936년 3월 3일 일본에 도착했고, 도착 직후



토마스 G. 히치(Thomas G. and Emilie Hitch) 부부
및 딸 애니(Annie)

3월 19일부터 커닝햄과 함께 선교부의 한국 교회들을 순방하였다.

요츠야선교부에 부임한지 3달 후, 커닝햄의 사망으로 선교부의 일을 떠맡게 되어, 1937년까지 월간 선교소식지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의 편집과 선교부의 회계를 맡고, 1936년 10월 한국을 방문하여 선교부의 교회들을 시찰하였다.

히치 부인(Mrs. Emilie Hitch)과 딸 앨리스(Alice)는, 막내 딸 룯(Ruth)이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1937년 3월 2일 일본 사역에 합류하고, 큰 딸 에밀리(Miss Emilie A. G.)가 그해 12월 15일 호주를 떠나 일본에 도착하였다. 애니와 앨리스는 선교부 사무실을 도와주고, 성경반을 가르치고, 일본어를 배웠다. 히치 가족은 찬양을 잘해서 가끔 교회의 초대를 받아 특송을 하였다.

이즈음 요츠야선교부의 한국 사역이 크게 성장하여, 서신 연락과 선교사의 간헐적 방문보다 더 확실한 감독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에 선교부의 선교사들과 일본인 목회자들이 히치 가족의 한국 파송을 결정하고, 선교부 자문위원회 다수가 찬성하여, 한국 교회 유급 사역자 13명이 히치 가족을 한국 선교사로 초청했다. 이 초청에 응하여 히치는 1938년 2월 18일 거주할 집을 마련하고, 서울 제1교회(아현동)가 개설한 서울성경훈련원(Bible Training School)의 확장계획을 담임 사역자 이인범과 함께 세우기 위해, 한국으로 먼저 왔고, 부인과 가족은 3월 24일 한국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고베(神戸)로

가는 기차를 탔다.

서울에 거주하는 동안 히치는 5월 초 북쪽 지방의 선교부 교회들을 순방하고, 7월 교외의 외곽 지역에 있는 선교기지 성경학교를 방문했다. 또 성경훈련원의 교장이 되어, 학교를 제1교회에서 그의 임대 주택으로 옮겼다가, 다시 여름 방학 후 9월 아현동 임대 건물 2층으로 옮겼다. 당시 주간반 학생이 남자 7명, 여자 5명, 야간반 학생이 남자 11명, 여자 2명이었다. 학생 중에는 현직 목회자와 여전도자들이 다수였으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재학 중 혹은 졸업 후에 파송을 받았다. 이인범과 히치 부부, 딸 에밀리가 가르쳤고, 감리교 출신 홍종숙 목사가 교수와 직원으로 합류하였다.

히치가 선교부 사역을 본격적으로 수행한 1938년 말 한국에는 14개 교회(서울 4개, 인천 3개, 한강 이북 5



(상)서울성경훈련원 학생들과 토마스 히치 선교사의 피크닉(1938년)
 (하)서울성경훈련원 학생들과 오웬 스틸 선교사(1939년, 아현동)
 뒷줄 좌측부터 홍종숙 목사, 이인범 목사, 신신근 목사, 김영배 전도자
 (동역, 와세다대 학사, 중국 상해 성요한대학교 석사), 오웬 스틸

개, 한강 이남 2개), 사역자가 지도하는 7개 모임(서울 2개, 인천 2개, 신의주 3개), 사역자가 없는 소규모 모임들이 있었다.

1939년 4월 에밀리는 당시 요츠야선교부가 겪고 있는 재정난을 의식하고 선교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역을 중단하고 귀국을 결정했다. 몇 달 후 히치 또한 그의 건강 때문에 한국 사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티베트 국경지대에서 사역할 때 두 자녀를 잃고 그 때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신경쇠약에 걸려 있었고, 그 일 이후로 두 세 차례 신경쇠약으로 고생을 했었다. 또 한국에서의 사역이 너무 과중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어서 또 다른 신경쇠약으로 쓰러질 것 같은 위험을 느꼈었다. 히치 부부는 1939년 여름 화진포에서 존 T. 채이스(John T. Chase) 가족, 존 J. 힐(John Jesse Hill) 가족, 일본에서 건너온 다수의 선교사들과 함께 휴가를 보낸 후, 요츠야선교부를 사임하고, 8월 말 호주로 떠났다.

히치가 떠난 이후 서울성경훈련원은 이인범, 홍종숙, 신신근(제물포 제1교회 담임 사역자) 등이 가르치고 운영했다. 서울성경훈련원은 정규학교가 아닌 성경훈련반으로 다수의 목회자들과 여전도사들을 배출하고 파송하였지만, 요츠야선교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된 1941년 3월 이후 문을 닫았다. 히치의 다른 딸 앨리스는 호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남아 사역(영어성경반 지도)을 계속했다. 그러나 영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영국 정부의 자국민 철수 권유가 있자, 사역을 포기하고, 1940년 10월 30일 호주로 떠났다. 가족으로는 독일 태생 부인(Mrs. Emilie Hitch)과 딸 에밀리(Miss Emilie A. G.), 애니(Annie), 앨리스(Alice M.), 룯(Ruth)이 있었다.

[참고문헌] [TC: Tokyo Christian]. "Enlarged Program for Korea", TC vol.XX? no.10, Aug. 1933; "About People", vol.XXXV no.4, Feb. 1936; "About People", TC XXXV no.6, Apr. 1936; "Miscellaneous", TC vol.XXXVI no.3, Jan. 1937; "Our Opportunity in Korea", TC vol.37 no.3, Jan. 1938; "Mission News", TC vol.37 no.4, Feb. 1938; "Into Korea", TC vol.37 no.5, Mar. 1938; "Into Korea", TC vol.37 no.5, Mar. 1938; "Picture of Yotsuya Missionaries", TC vol.37 no.6, Apr. 1938; "Yotsuya Mission Calendar", Apr. 1938; "The Hitches Go To Korea", TC vol.37 no.7, May 1938; Annie Hitch, "Visit To A Korean Out-Station Bible School", TC vol.37 no.9, Jul. 1938; T.G. Hitch, "Progress And Need In Korea", TC vol.37 no.10, Aug. 1938; Emilie Hitch, "The Bible Training School in Korea", TC vol.38 no.2, Dec. 1938; "A Visit to Jinsen", "New of the Work", "How the New Church Was Built", TC vol.38 no.4, Feb. 1939; "Opportunity Book of Yotsuya Mission" "Yotsuya Mission's Yearly Report", TC vol.38 no.6, Apr. 1939; "Workers Leaving", TC vol.38 no.11, Sep. 1939; "Special Letter to You", TC vol.39 no.1, Dec. 1939; "Korean Training School", TC vol.39 no.12, Nov. 1940; 백종구,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 쿤란, 2018.

백종구(전 서울기독교대학교 교수)

3) 스틸 Still, Owen 1892.12.3.-1973.7.12. 미국 그리스도(인)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목사, 선교사.



오웬과 셸리 스틸(Owen and Shirley Still) 부부

목회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인 셸리 스틸(Shirley Swetnam Still)은 선교부 제3교회에서 주일 오전 성경반을 개설하였다.

스틸은 1938년 3월 학생 설교자 훈련반을 시작하고 이어서 일본인 목회자반, 영어성경반을 열고, 주일에 1개 반을 가르치고, 2개 교회에서 설교했다. 또 7월 주일 오후 자신의 거처에서 선교기지 성경학교를 열었다. 1939년 봄 히치의 사역을 도우려고 한국을 방문하여, 히치 관할 아래 있는 서울과 제물포(현재 인천)에서 선교부 교회들을 순방하며 사역들을 시찰하였다.

스틸은, 히치가 1939년 8월 말 호주로 돌아간 후, 서울성경훈련원(Bible Training School)에서 가르치고 이끌어갈 한국인 사역자 홍종숙, 이인범, 신신근을 「도쿄 그리스도인」에 자세히 소개하였다. 또 새로운 선교사가 한국에 올 때까지 요츠야선교부는 6개월에 한 번씩 선교사를 파견하여 한국의 복음사역을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스틸은 한국의 복음사역 관리 차원에서 1940년 6월과 9월 각기 거의 한 달씩을 한국에서 보냈고, 1941년 초 일본에 일어난 변화(종교단체법과 교회합동)로 인해,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의 복음사역 지원이 3월 이후 끝날 경우를 대비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인 셸리 스틸과 자녀들은, 오웬 스틸 2세와 막내 딸 릿의 건강문제로, 미국 대사관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1940년 10월 31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스틸은 1941년 6월 초 안식년으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전쟁 중 스틸은 미국에 머무르면서 재미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1941년 9월(40권 11호)~1943년 3월(43권 2호)까지 「도쿄 그리스도인」을 계속 편집했다.

전쟁 종료 후 1947년 2월 중순 일본에 돌아와 요츠야선교부의 재건에 힘썼다. 그러

나 부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최소 1년간 건조하고 따뜻한 지역에서 보내야 한다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1948년 6월 재차 안식년으로 미국에 들어가 당분간 애리조나 주 피닉스(Phoenix)에 머무르면서, 사우스웨스트기독교신학교(Southwest Christian Seminary)에서 선교를 가르치고, 새로운 선교교회(Mission Church)를 개척했다.

스틸은, 부인의 건강 때문에 의사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950년 5월 4일 사역지를 옮겨 하와이로 떠났다. 하와이의 오하우(Oahu)섬에서 7개 그리스도(인)교회들의 설립을 돕고, 팔롤로 밸리(Palolo Valley), 칼리히(Kalihi), 카네오헤(Kaneohe), 하우올라(Hauula), 와하이아(Wahiawa), 마이레(Maile), 선셋 비치(Sunset Beach)에 있는 교회들에서 목회했다. 1973년 7월 12일 오하우 섬 와하이아종합병원(Wahiawa General Hospital)에서 별세하여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파우(Waipahu, Honolulu County), 밀리라니추모공원(Mililani Memorial Park)에 안장되었다.

부인 셸리 스틸(Shirley Swetnam Still)은 글 솜씨가 있어 환원협회의 월간지 「환원전령」(Restoration Herald)에 기사를 많이 썼고, 커닝햄 부인과 공동으로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의 전기 *The Flaming Torch*(1939)를 저술했다. 별세 후 유해는 스틸의 묘지에 합장되었다. 자녀로는 아들 스틸 2세(Owen Still Jr.)와 딸 엘레노어(Eleanor Sprankles), 레베카(Rebecca Kerby), 룯(Ruth Powell)이 있었다.

[주요저술] "First Impressions of the Yotsuya Mission" (CS 15 Jan. 1938); "Member of Yotsuya Mission to Japanese on West Coast"(CS 25 Jul. 1942).

[참고문헌][TC: Tokyo Christian, CS: Christian Standard, KM: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Mr. & Mrs. Owen Still", TC vol.XXXVII no.1, Nov. 1937; "Editorial", TC vol.XXXVII no.2, Dec. 1937; "Mission News", TC vol. 37 no.3, Jan 1938; "Things Of Interest", TC vol.37 no.5, Mar. 1938; "Mission News", TC vol. 37 no.7, May 1938; "The Newest Out-Station Bible School", TC vol.37 no.9, Jul. 1938; "A Visit To Korea", TC vol.38 no.7, May 1939; "Account of A Tour of Yotsuya Mission Churches in Korea", TC vol.38 no.12 Nov. 1939; "Tour of Yotsuya Mission Churches in Korea", TC vol.39 no.1, Dec. 1939; "A School In Tokyo", KM Dec. 1939; "Tokyo Night School for Christian Workers", TC vol.39 no.2, Jan. 1940; "Mission News", TC vol. 39 no.9, Aug. 1940; "Why We Work in Korea", TC vol.39 no.10, Sep. 1940; "My First Trip To Korea", TC vol.39 no.12, Nov. 1940; "Mission News", TC vol.40 no.2, Dec. 1940; "Our Korean Work", TC vol.40 no.7, May 1941; "Brother Still to Spend Summer in America", TC vol.40 no.8, Jun. 1941; "Yotsuya Mission Entering New Field", TC vol.41 no.4, Feb. 1942; "Yotsuya Mission Entering New Field", TC vol.41 no.4, Feb. 1942; "Yotsuya Mission Executive Committee Meets", TC vol.42 no.1,

Dec.1942; "Stills Get Health Furlough", TC vol.47 no.3, May-Jun. 1948; Eva Green, "Best Wishes to Stills", TC vol.49 no.3, May-Jun. 1950;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1883-1983)", <http://www.bible101.org/japanmissions/page01.htm>; Nora Rebecca Kerby, In Word Or in Deed: The Story of Owen Still, Sr, Mission Services Press, 1970; <https://www.findagrave.com/memorial/220401949/owen-stil>; 백종구, "윌리엄 D. 커닝햄과 한국인 선교-동경 요시아선교회를 중심으로", 「신학논총」 (2012); 백종구,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 쿰란, 2018.

백종구(전 서울기독교대학교 교수)

1930년대 말에 오웬 스틸은 한국교회들의 방문소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바가 있다.

첫째, 열정, 온 마음 찬양, 진실한 기도, 박력 있는 설교가 인상적이었다.

둘째, 친절과 환대에 놀랐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높다는데 놀랐다. 돈을 요구할까봐 한가득 걱정으로 한국에 갔지만,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뭄과 가난에 찌들어 있었지만, 주님의 일에 용기 있게 나섰다.

넷째, 전도의 영이 충만하였다. 한국인들은 집중적으로 전도에 힘썼다. 그들은 선교기지를 열어 주일학교를 시작하면 곧이어 교회로 발전시켰다.

방현(芳峴)은 일본 말로 '호겐'(Hoken)이라 불렸으며, 인구 4,000여명이 사는 구성군의 방현면 면소재지에 교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외국인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았던 외진 곳으로써 정주역에서 내려 버스로 25킬로미터 정도 가야하는 거리에 위치하였다. 커닝햄, 히치,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과 쉰멜, 오웬 스틸 등이 이곳을 방문하였고,



1940년에 오웬 스틸이 방문하였을 때는 체육회가 열리는 때였는데, 전주민의 관심이 스틸에게 쏠림은 물론이고 일경의 눈초리까지 받아야 해서 자리를 피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TC, 1940년 9월호). 이때의 충격을 오웬 스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방현을 방문했을 때 체육회가 열렸는데, 아이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일경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일경들이 의식을 큰 소리로 진행시켰는데, 체육회는 황국신민서사의 낭독과 제창 및 동방요배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경찰까지도 백인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현장을 떠나야 했다. 방현은 4,000여명이 사는 면소재지였다.

스티가 목격한 의식은 정확히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국가 합창(일본국가 기미가

요), 2)동방요배(일왕이 사는 곳을 향한 궁성요배), 3)전사 장병 묵도, 4)황국신민서사 낭독, 5)식사(式辭), 6)천황폐하 만세 삼창.

일제는 1937년부터 공식화된 ‘황국신민의 서사’를 모든 조선인들에게 암기, 제창하게 하고 출판되는 모든 서적에도 반드시 실을 것을 강요하였다. 동방요배는 이미 191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1942년 이후 군국주의 정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각 교회들이 예배 시작 전에 동방요배를 하라는 강요를 받았다.